

육계자조금

자조금소식 전국 육계인 순회 토론회 양계 발전방안 논의하녀 나무리
닭이야기 다이어트에 닭가슴살 등 부위 별로 즐기는 닭고기

본 정보는 육계자조금으로 제작되어
전국의 모든 육계농가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2009

12

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제안



이 홍 재

육계자조금대의원회 의장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장

육계의무자조금사업이 2기 대의원 출범으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우려와 기대 속에 치러진 대의원 선거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서 자조금사업을 통한 육계산업의 대 번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우, 양돈 등 타 축종의 경우 자조금사업을 통하여 생산농가가 산업의 주인으로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육계인이 육계산업의 주인이 된다면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많은 어려움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육계자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와 생산농가 여러분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우리의 소중한 자조금을 산업 발전과 생산 농가를 위해 쓰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히 육계산업은 계열화 사업의 결과로 부분별한 소비촉진 활동으로는 자조금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현재의 상황에서 소비촉진 활동으로 생긴 이익을 농가와 계열사가 공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은 생산 농가를 위한 산업기반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농가교육을 비롯해 20여 년간 진행된 계열화사업의 평가, 적정 사육비에 대한 조사·연구, 표준계약서 제작과 적용을 위한 조사·연구, 병아리 이력제에 대한 연구 등 산업기반 안정을 위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

둘째로 농가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육계산업은 계열회사들이 산업의 흐름을 주도해 왔고 농가는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치부되어 왔다. 그 결과 생산 농가를 위한 정책이 거의 없었다. 이것은 생산 농가가 산업의 주인공 역할을 포기한 대가로 생겨난 결과이다. 지금부터라도 산업을 위해 투자하고 주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자조금사업은 생산 농가에게 사업의 결정권이 있고, 정부

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익이 보장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생산 농가를 대표하는 대의원회를 통하여 언제든지 농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생산자 단체를 통하여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생산농가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자조금의 성공여부는 거출금액이 분제가 아니라 거출률에 달려있다. 100만원씩 100농가가 거출한 1억과 10만원씩 1000농가가 거출한 1억은 분명 의미와 가치가 다르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자조금 사업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육계의무자조금사업이 오랜 시간 표류한 것은 육계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이로 인한 갈등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생산자의 입지가 빈약한 관계로 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자조금을 납부하는 농가는 물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산업구성원에게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어 자조금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을 알게 해야 하고 정부의 자조금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 지원 사업만이 아니라 시, 도, 군 사업에도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계열회사와의 갈등과 농가의 이해부족 등으로 어려움 속에서 자조금 사업을 추진해 온 축산단체와 여러 관계자, 그리고 농가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육계의무자조금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농가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제2기 육계자조금대의원 66명 선출

2013년까지 임기 4년 이끌어... 22일 대의원회 개최

제2기 육계자조금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지난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전국 55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결과 44개 선거구에서 66명의 대의원이 선출됐다.

제2기 육계자조금대의원회의 임기는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3년 12월 22일까지 4년간이다.

제2기 육계자조금대의원 명단

선거구	선거구명	성명	주소
1	파주, 김포, 고양	남상길	경기 고양시 일산구 법곶동
		김경래	경기 파주시 월봉면 위전리
2	연천	정남훈	경기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원인희	경기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4	포천, 동두천, 양주, 남양주	정영상	경기 포천시 소흘읍 대방아파트
		박성훈	경기 포천시 영증면 금주리
5	양평	박왕준	경기 양평군 단월면 보룡리
6	여주	김막래	경기 여주군 흥천면 북대리
7	이천, 광주, 성남	최충호	경기 이천시 백사면 경사리
		김능재	경기 이천시 송정동
9	안성	한경택	경기 안성시 보개면 신안리
11	화성	최길영	경기 화성시 장안면 득정리
		김한영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삼촌리
12	춘천,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김의규	강원도 춘천시 등내면 사임2리
14	천안	김의집	충남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15	공주, 연기, 대전	김병화	충남 공주시 탄천면 대학리
		김훈겸	충남 공주시 의당면 요룡리
16	당진	이홍재	충남 당진군 고대면 성산리
		이종승	충남 당진군 성미면 대조리
17	아산	김대근	충남 아산시 율봉면 신정리
18	서산, 태안	이동용	충남 서산시 상연면 갈현리
19	홍성	유희경	충남 홍성군 홍동면 수란리
20	예산	박호귀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1	보령	김장배	충남 보령시 용천읍 성동리
22	정양	장창훈	충남 정양군 정남면 아산리
23	부여	박종성	충남 부여군 장암면 시토리
		방진우	충남 부여군 내산면 온혜리
24	서천	인준철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성북리
25	논산, 금산, 계룡	정운광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등리
		한판식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두월리
26	충주, 제천, 단양	김종선	충북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유건형	충북 제천시 청풍면 양평리
27	유성	이상정	충북 유성군 소이면 증동리

선거구	선거구명	성명	주소
28	괴산, 증평	이원규	충북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29	청원, 진천, 청주, 보은, 옥천, 영동	박상성	충북 청원군 옥산면 호주리
		원용균	충북 진천군 녜산면 구산리
30	익산, 군산	최민영	전북 익산시 용동면 대조리
		심순택	전북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조공	전북 익산시 옥시면 옥봉리
33	완주, 장수, 무주	구광희	전북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34	정읍	이상영	전북 정읍시 북면 승부리
		주상근	전북 정읍시 감곡면 진흥리
		이연철	전북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35	고창	오세진	전북 고창군 성내면 내흥리
36	임실	이문구	전북 임실군 녜치면 회문리
37	남원	한병권	전북 남원시 주천면 주천리
		손원철	전북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38	순창	이태근	전북 순창군 동계면 신흥리
40	강진, 장흥, 해남	전병현	전남 해남군 황산면 일신리
41	무안	이민신	전남 무안군 현경면 등산리
		조건택	전남 무안군 망운면 송원리
42	함평	김봉이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43	영광	김병오	전남 영광군 보령면 윤당리
44	나주, 화순, 광주	양재열	전남 화순군 한천면 정리
		김정윤	전남 나주시 왕곡면 화정리
		김용근	전남 나주시 다시면 문동리
46	인동, 영주, 예천, 문경, 청송, 울진, 영덕	홍순중	경북 안동시 와룡면 지내리
		김명택	경북 청송군 부동면 지리
47	상주, 의성	김윤태	경북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김태식	경북 의성군 금성면 학미리
48	김천, 칠곡, 구미, 성주, 고령	서성갑	경북 김천시 대항면 북전리
		김국복	경북 구미시 교이읍 대명리
49	영천, 군위, 경산, 청도, 경주, 대구, 포항	구성보	경북 영천시 오비동
50	합천, 산청, 거창, 함양	류준희	경남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51	창녕, 함안, 창원	최권구	경남 창녕군 고안면 억만리
54	인천	함경섭	인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제2차 육계자조금대의원회 개최 2010년 육계자조금 거출금 '육계' 3원으로 최종 결정

내년도 육계자조금 '육계'의 거출금이 기존 수당 5원에서 3원으로 인하되고 삼계와 재래닭, 종계도 이에 맞춰 각각 하향 조정됐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의장 이준동)는 지난 22일 대전 유성 아드리아 호텔에서 2009년도 제2차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육계자조금 거출금의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와 함께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대의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으며, 관리위원 및 감사 등을 위촉 승인했다.

이준동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10년이 육계자조금 정착과 육계산업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같이 육계산업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으로 만들어 보자"며 대의원들의 결집을 당부했다.

대의원회의 안건 가운데 '육계자조금 거출금 변경' 건은 거출금을 낮추는 안이 제시되어 장시간의 끝없는 난상토론 속에 육계는 기존 수당 5원에서 3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최종 승인되었다. 그리고 삼계나 재래닭, 종계 등은 기존 거출



금 비율(산계는 육계의 50%, 재래닭은 150%, 종계는 10배)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산계는 2.5원에서 1.5원으로 재래닭은 7.5원에서 4.5원으로, 종계는 50원에서 30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육계자조금 거출금 변경 건은 회의시간을 넘기는 장시간의 마다돈회의와 난상토론을 거듭한 가운데 육계 거출금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는 기존 비율로 정하기로 하였다. 육계 거출금의 경우 2원, 3원으로 압축되어 투표에 붙였으나 1차 투표에서 각각 28대 28로 동수로 나와 2차 기립투표까지 가서 결국 '2원 23명', '3원 26명'으로 결정되어 의결됐다.

이에 앞서 실시된 대의원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서는 2010년 대의원회 의장에 충남 당진의 이홍재 대의원이 선출됐으며, 부의장에는 전북 남원의 한병권 대의원이 선출 승인되었다. 또한 관리위원 20명과 감사 2명이 각각 승인되어 위촉됐다.

이홍재 신인 대의원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육계자조금을 정착시키기 위해 대의원회와 관리위원회, 양계농가의 연결고리 역할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어 육계자조금 사업추진 경과와 지난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제2기 육계자조금 대의원선거 결과가 보고 상정되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제2기 육계자조금대의원은 44개 선거구에서 66명이 선출됐으며, 임기는 2013년까지 4년간이다.

의결사항으로 제출된 육계자조금 관리위원 및 감사 위촉 건은 축산단체의 일방적인 선출이 아닌 대의원 의견수렴도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토론을 거쳐 결국 거수투표로 찬성 46명, 반대 6명으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감사는 경기의 최길영, 전북의 심순택 대의원이 선임됐다.

2010년 육계자조금 거출금액

구분	2009	2010
육계	5원	3원
산계	2.5원	1.5원
재래닭	7.5원	4.5원
종계	50원	30원



전국 육계인 순회 토론회 양계 발전방안 논의하며 마무리

전국 11개 도시에서 자조금 필요성 공감... 정부정책 질책

올해 처음 실시한 전국 육계인 순회 토론회가 육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끝났다. 이번 토론회에서 육계인들은 자조금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를 확고히 하였으며, 정부의 부책임한 양계정책에 대한 농가의 질책이 이어졌다.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11월 19일 전북 남원을 시작으로 12월 18일 제주지역까지 전국 11개 도시에서 양계산업의 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국 육계인 순회 토론회를 개최, 육계산업 정책 설명과 현장 농가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갖고 양계산업 발전에 관한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

이준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은 제대로 된 양계산업을 위해 유통구조를 바꿀 수 있는 원년을 만들자”며 “자조금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FTA와 타축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질병관리, 유통 및 사육비 현실화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용역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영만 사무관은 ‘2010년 정부의 양계관련 정책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농식품부 동물방역과 홍기성 사무관은 ‘정부의 양계 질병방역 정책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은 ‘육계자조금 현황과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하고, 정찬이 수의사와 임우형 수의사는 ‘닭 봉입체(닭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발생동향 및 대책’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갔다.

‘2010년 정부의 양계관련 정책 및 추진계획’을 발표한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영만 사무관은 양계산업 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 발표와 함께 양계산업의 생산성 저하에 대한 분세제과 가격결정의 분세, 유통구조 개선 등의 해결을 위해 농가들의 협조를 강조하며 조직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농식품부 동물방역과 홍기성 사무관은 ‘정부의 양계질

병방역 정책 및 추진계획’ 발표에서 전염병 발생 최소화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경쟁력 확보 나선을 위해 향상 민·관 방역 기반 구축으로 상시방역 배세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육계자조금사업의 현황 및 추진방향’ 발표에 나선 이홍재 부회장은 계열화 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열화 사업의 폐해로 인한 육계산업의 붕괴를 우려하였다. 이에 정부의 정책지원 필요와 생산자단체, 회사별 농가대표, 계열사대표,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구성된 평가기구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특히 농가의 지속적인 시설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결속력 확보를 당부하였다. 그리고 “자조금은 육계농가의 식수준을 끌어올리고, 생산자 결집을 가져와 농가 스스로가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육계자조금의 필요성에 대해 농가들에게 제차 강조하였다. 그리고 법으로 강제되는 자조금 사업이 아닌 농가 스스로의 참여를 역설하였고, 그동안 중재위원회 설치검토와 검사 질병확대 등 자조금 사업의 성과를 밝히며 양계농가들의 결집을 호소하였다.

‘닭 봉입체간염(닭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발생동향 및 대책’을 강연한 정찬이 수의사와 임우형 수의사는 “닭아데노바이러스가 최근 국내 양계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현재 양계현장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직전파뿐만 아니라 분변, 비강+구강 점막, 정액 등을 통해 수평전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차단방역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임을 역설하며 농가는 목적에 적합한 소독제 선택 및 사용으로 견고한 면역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가가 할 수 있는 방역 대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연구기관, 생산자단체가 연계, 정확한 원인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검사 등 국가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육계자조금 홈페이지로 자조금 홍보

자조금사업 및 활동사항 일목요연하게 소개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동) 홈페이지(www.ichicken.or.kr)가 12월 말 개설됨에 따라 육계자조금의 운영 내용과 주요 행사 일정, 최근 홍보활동 등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육계자조금에 대한 이해를 고취하기 위해 자조금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다. 새로 개설된 홈페이지는 크게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소개와 자조금제도 소개, 자조금운영실적, 알림마당, 참여마당 등으로 나뉜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소개’ 메뉴에는 위원장 인사말과 설립목적 및 연혁, 조직도, 대의원회, 관리위원회, 관련기관, 찾아오시는 길 등의 내용이 담겨있고 ‘자조금제도’에는 육계자조금제도 소개, 설립배경, 자조금 납부안내, 관련법규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조금 운영’ 메뉴에서는 사업추진계획과 사업추진내역, 자조금 납부현황조회, 사업성과보고서, 인쇄광고, 각



종홍보활동자료 등의 내용이 게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신 소식을 전하는 ‘알림마당’ 메뉴에서는 공지사항과 보도자료, 입찰공고, 사업행사일정, 업계뉴스, 육계자조금소식지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농가 및 소비자들의 참여가 가능한 ‘참여마당’에서는 위원회에 바란다, 자유게시판 등의 참여 코너를 개설해 육계자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거나 의견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공적인 육계자조금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자조금 활성화 방안과 닭고기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 방안 연구

육계자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자조금이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업 방향과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이 실시된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동)는 육계자조금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공정하게 분석 평가함으로써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육계농가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향을 정립하며 향후 자조금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자 ‘성공적인 육계자조금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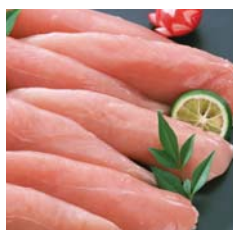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은 육계자조금의 효율적 조성

방안, 자조금사업의 개발과 정책방향 등으로 ▲육계자조금 조성 활성화 방안 ▲효율적인 자조금 사업방안 ▲자조금 선진국의 사업방향 자료수집 ▲자조금사업으로 농가 소득 향상 방안 등을 포함하는 육계자조금의 효율적 조성 과 운용방안 ▲생산농가 교육 참여방안 및 경영자 의식강화 ▲농가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발굴 ▲개방화 대비 정부지원정책 등을 포함하는 자조금 사업의 개발과 정책방향 등을 담아야 한다.

또 ▲닭고기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 ▲소비증대를 위한 타축종과의 차별화 방안 ▲육계산업에 대한 전망 등의 내용도 함께 연구될 수 있도록 했다.

다이어트에 닭가슴살 등 부위별로 즐기는 닭고기

닭고기는 부위별로 맛과 영양이 조금씩 달라서 취향에 맞게, 대상에 맞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백색육류이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는 닭가슴살 부위가, 아이들 간식으로는 닭날개가 좋으며 피부미용 효과를 얻고 싶을 때도 닭날개를 먹으면 도움이 된다. 닭다리의 경우 육질이 탄력 있어 감칠맛이 나고 쫄깃쫄깃해 여러 가지 닭요리로 쓰일 수 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춘천닭갈비도 이 닭다리 살로 만든다. 닭고기는 또한 껍질과 살, 지방 세부분이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어 다양한 요리에 고루 응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고단백 저지방 닭 가슴살

한동안 천덕꾸러기였던 닭가슴살이 웰빙 바람을 타고 고품질부위로 급부상했다. 고단백 저지방 음식의 대명사로 불리며 최근 다이어트, 몸짱 만들기 등의 열풍에 힘입어 귀하신 몸이 된 것이다. 닭가슴살은 단백질이 23%로 쇠고기나 돼지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다. 닭고기의 단백질은 양적으로도 함유량이 높지만 필수아미노산도 많아 질적으로도 우수하다. 또 가슴살은 지방이 매우 적고 맛이 담백해 회복기 환자 및 어린이 영양 간식에 적합하며, 특히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도 영양균형을 이룰 수 있어 무리한 다이어트로 단백질 부족 현상을 겪는 사람에게 좋다. 콜레스테롤 함량 또한 낮아 고혈압 환자들에게도 좋다고 한다.

춘천닭갈비는 닭다리로 만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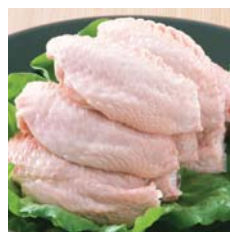
닭다리살은 육질이 탄력이 있고 단단하며 지방과 단백질이 섞여있어 감칠맛이 나고 쫄깃쫄깃하다. 운동을 많이 하는 부위여서 미오글로빈과 같은 육색소, 즉 힘색소가 다른 부위보다 많아 붉게 보인다. 우리가 자주 먹는 춘천닭갈비의 닭고기는 닭의 갈비뼈 부근에 있는 살이 아니라 넓적다리 살을 이용한다고 한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닭가슴살 외에 닭다리를 먹어도 좋다. 일본 히로시마 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닭다리에서 추출한 콜라겐 성분이 혈압을 낮춰주고 그 상태를 지속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리살은 날개, 목살과 함께 비타민 A와 비타민 B₂의 함량이 높아 입 병을 예방하고 피부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라겐이 다량 함유된 닭 날개

날개 역시 비교적 운동량이 많은 부위로 탄력이 있고 단단하며 근육의 색이 짙다. 껍질에 지방이 많지만 진하고 고소한 맛이 나므로 뼈째로 오븐에 굽는 로스트치킨이나 바비큐용으로 좋다. 또 뼈 주위에 팩틴질이 많아 육수를 만들면 감칠맛이 난다. 날개에는 피부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는 콜라겐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맛이 좋아 조림이나 튀김요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무침이나 샐러드에 이용하면 좋은 안심

안심은 가슴살 안쪽의 고기로 가슴살과 같이 단백질이 지방이 거의 없다. 가슴살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중간에 하얀 힘줄이 박혀있는데 선명하게 보이는 심줄을 잡아당겨 빼내고 사용한다. 안심을 오래 익히면 살이 단단해져 맛이 없어지므로 찌는 요리에는 잘 쓰지 않고 살을 가늘게 찢어 무침이나 샐러드에 이용하면 좋다.

다양한 영양소가 가득, 간과 염통

모래주머니(근위)는 지방이 적어 칼로리가 가장 낮으며 단백질은 물론 비타민 B와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 쫄깃쫄깃하게 씹는 맛이 좋아 술안주로 좋으며 볶음이나 조림, 구이 등의 요리에 많이 이용된다.

닭의 간에는 다양한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A나 철분, 비타민 B₁ 등이 소간보다도 많이 들어 있다고 한다. 염통 역시 소 염통보다 영양가가 높고 비타민 A나 비타민 B군도 상당히 들어 있으며 철분이 많아 빈혈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닭 껍질은 지방이 많아 열량이 높기는 하지만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각종 질병 예방은 농장의 바이러스 오염 최소화부터

임우형 반석가금진료연구소 수의사

본 내용은 2009 전국육계인 순회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닭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강의 후 질병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육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난계대 질병은?

일반적으로 난계대 전염은 세균성 질병과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균성 질병으로는 살모넬라 감염증(추백리, 가금티푸스, SE 등), 마이코플라스마 감염증(MG, MS)이 있으며 바이러스성 질병으로는 아데노바이러스(봉입체성 간염, 심낭수종 증후군), 닭 전염성 빈혈증(CIAV), 뇌척수염 바이러스(AE) 등이 있습니다.

세균성 난계대 질병은 종계가 감염된 이후 지속적으로 난계대가 이루어지지만 바이러스성 난계대 질병은 종계가 산란 중 감염 후부터 항체를 어느 정도 획득한 시기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난계대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데노바이러스와 닭 전염성 빈혈증 등의 발생이 예전보다 많은 이유는?

이것은 종계가 산란기간에도 해당 질병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계가 육성기간에 해당 질병에 감염되지 않고 산란기간 동안 질병에 감염되면 일정 기간 동안 난계대가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 질병에 대한 항체가 음성으로 유지되는 경우 조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모체이행항체가 없으므로 육계농장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경우 질병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모체이행항체가 높은 수준의 초생추 생산과 농장에서의 바이러스 오염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화학용으로 사용되는 포르말린이 소독효과가 있는가요?

화공약품 상회에서 판매되는 포르말린도 소독효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품의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농장에 감보로병(IBD)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해결 방안은?

IBD 예방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독입니다. IBD 바이러스는 외막이 없는 바이러스로서 소독약에 대한 저항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농장이 한 번 오염되면 바이러스를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계분을 깨끗하게 치우고 충분한 소독을 통하여 바이러스 오염도를 충분히 낮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백신입니다. 적절한 백신균주의 사용 및 접종 일령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모체이행항체의 수준을 모르는 경우 두 번의 백신접종이 권장되고 두 번 모두 같은 백신균주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차량소독이 중요합니다

AI 정의

닭·오리·철새 등 여러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AI 임상증상



- 벼슬이나 다리의 청색증
- 안면종창(안면붓기)
- 호흡기증상
- 흰색 또는 녹색의 심한설사로 침울한 증상

AI 등 가금 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농가 차량운전자는 가금사육시설 집합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할 때 마다 차량에 대한 소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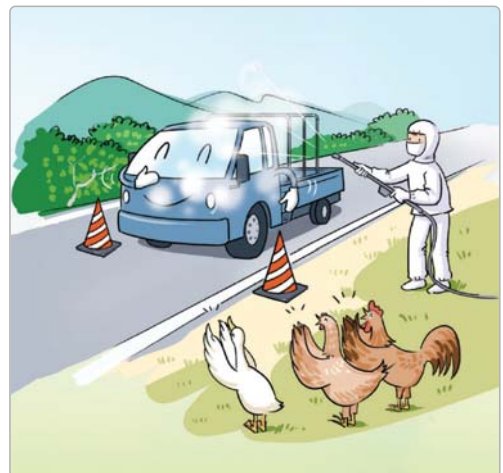


AI 전파경로

- 농장간 또는 농장내에서 가금·사람·차량·장비의 이동
- 비위생상태의 조류 유입 및 이웃 계군간의 접촉
- 오염된 쥐나 야생조류와의 접촉
- 오염된 물·사료 섭취시 또는 기침시의 비말 접촉
- 오염된 공기중의 부유물에 의한 인근농장 전파
- 장거리 전파는 야생철새의 이동에 따라 전파

AI 예방 차량운전자 소독방법

- 농장출입시 차량소독
 - 농장출입구에서 차량 바퀴, 차량의 밑부분, 적재함 등의 흙과 계분 등 오염물질을 고압세척기로 세척한 후 역성비누, 포르말린 등으로 소독
 - 차바퀴에 붙은 흙과 계분을 깨끗이 제거한 후 알칼리제, 복합소독제 등을 충분히 적신 상태로 소독
 - 운전석 등 내부는 스펀지에 소독제를 묻혀 닦아 내고 운전석과 조수석 바닥도 소독제로 소독
 - 차안에 있는 신발(특히 바닥), 운전자 손 소독
- 계열화 업체 사료운송차량 소독
 - 농장출입 전후에 업체의 자체 소독시설을 이용하여 해당차량을 철저하게 세척소독



닭고기 보양·면역증강 식품으로 언론에 주목

내년에도 언론홍보를 통한 소비촉진 노력 계속될 것

2009년은 육계 산업에 있어서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다. 신종 플루 발생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주춤하면서 반사이익으로 닭고기 소비가 늘었으며 여기에서 닭고기가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런가하면, 2년 만에 재개됐던 일본 닭고기 수출이 12일 만에 다시 닫히는 등 희비가 교차된 한 해였다.

올 한해 각 언론에 보도된 닭고기 뉴스는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하고 유익한 기사로 넘쳤다. 특히 신종 플루에 대한 강한 면역성과 질병예방 효과를 다룬 기사와 그 동안 소비자가 잘못 알고 있던 영양 지식을 바로잡는 기사가 보도되었고, '몸짱' 열풍 속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포만감이 높은 음식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그 외에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 홍보 활동으로 (사)대한양계협회 지역별 지부의 활발한 활동이 보도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신종 플루의 위협이 거센 가운데 닭고기가 면역력과 영양을 증진시킨다는 내용의 기사가 많이 나왔다. 일간스포츠는 '칼로리가 높다? 닭고기의 진실과 오해' (5월 27일자)라는 기사를 통해 그동안 '닭고기는 칼로리와 지방이 많다'는 등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키고, 단백질 함량이 높고 불포화지방산이 많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은 '따뜻한 내몸, 자연 치유력 높아져요' (6월 1일자)라는 기사에서 닭고기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했고 '여름에는 닭요리가 최고예요' (이데일리 6월 19일), '영양만점 닭고기로 여름나기' (스포츠서울 7월 20일자), '수협생 건강식단은 이렇게!' (YTN TV 8월 9일 방송) 등의 언론보도에서 여

름철 보양식 닭고기를 조명했다. 또 '겨울철 약이 되는 음식' (헬스 코리아뉴스 12월 11일자), '좋은 지방을 먹는 지중해식 식단' (한국경제 12월 16일) 등에도 닭고기의 우수한 영양을 기사화했다.

또한 '몸짱'과 '다이어트'가 대세였던 올 한해, 단연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것은 닭가슴살이었다. 덕분에 닭가슴살이 품귀현상을 일으키는 등 미용에 관한 보도 자료가 특히 많이 실렸다. 매일경제신문에서는 "살 안찌고 포만감 주는 식단으로 비만 탈출" (6월 23일자)이란 제목으로 닭고기가 포만감을 주므로 다이어트식품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고, 이데일리는 노출의 계절 여름을 대비하여 '고단백 저칼로리 닭 가슴살로 건강다이어트에 도전하자' (7월 5일)며 원푸드 다이어트 식품으로 닭고기를 제안했다.

그리고 엠파이트에서는 '닭가슴살 먹으면 '근육생기고, 살빠



저?’ (8월 19일자) 기사를 통해 닭가슴살의 우수성을 보도했다. 이 같은 언론 보도에 힘입은 닭가슴살의 인기는 품귀 현상으로 이어졌고 연합뉴스에 ‘가슴살 볼타...공급 달려 아우성’ (7월16일자)이라는 기사로 소개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닭고기의 피부미용 효과에 대해서는 국민일보 ‘주름 예방을 위해 삼계탕?...여름 보양식의 숨겨진 효능’ (8월 3일자) 기사와 헤럴드 생생뉴스 ‘여름 보양식에 피부도 ‘탱탱’ (8월 12일) 기사 등을 통해 보도되었다. 또한 국민일보 ‘출산 후 심해진 두통, 혈액순환이 원인’ (11월 6일자) 기사와 아이비타임즈 ‘두통!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11월 14일자) 기사에서는 두통 예방을 위하여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으로 닭고기를 섭취할 것을 권장했다. ‘우울증 이렇게 치료한다’ 는 제목의 조선일보(12월 17일자) 기사에서는 우울증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 사람들의 행복감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원료(트립토판)가 야채나 타우류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 있는 닭고기를 추천하여 보도하였다.

닭고기 소비 홍보를 위한 행사도 다양하게 열려 소비자들에게 좀

더 친숙한 먹거리로 인식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뉴시스 신문은 지난 9월 9일에 구구데이 (9.9.Day)를 맞아 (사)대한양계협회 경북 안동시지부와 안동시가 함께 안동농협 파머스마켓 앞에서 개최한 닭고기 및 계란 소비촉진 행사를 보도했다.

매일신문(9월 10일자)은 경북 칠곡군산란계연구회가 농촌진흥청과 축산연합회와 함께 9월 9일 칠곡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육계와 솔잎 사료를 먹여 키운 계란 등을 시식하는 소비 행사를 개최한 소식을 전했다. 또 연합뉴스(9월 18일자)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한 ‘2009 전국 닭고기·계란요리 경연대회’ 대회를 기사화했고 아시아투데이(11월 19일자)는 충남 아산에서 (사)대한양계협회 아산시육계지부가 개최한 닭고기 소비촉진 무료시식회 행사를 보도하며 ‘이 시식회는 회원 자비로 매일 개최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올 한해는 신종 플루로 인해서 닭고기의 면역력 증강효과가 알려지면서 전통한식요리부터 퓨전요리까지 다양하게 많은 음식들이 보도되었다. 전통 한식 닭고기 요리로 양반들의 보양식 ‘임지수탕’이 매일경제(8월 13일자) ‘운숙자의 맛있는 한식’ 코너에 게재되었으며, 레이디경향(11월호)에서는 ‘신종 플루도 이겨내는 면역력 높이는 요리’로 닭가슴살을 재료로한 ‘피망치킨도리아’를 소개했다.

이어 국민일보(11월 27일자)에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닭고기 청국장스테이크덮밥’ 등이 이색 퓨전요리 등으로 다양하게 보도되었다.

올 한해 국내 생산능가 및 각 단체들의 소비홍보 활동으로 닭고기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오해를 불식시켜 소비자 인식 재고를 이루었으며 지속적인 품질향상 노력을 이어갔다. 2010년에도 안전한 먹거리, 닭고기에 대한 생산능가 및 자조금의 소비 홍보 노력은 계속되고 이러한 노력은 각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됨으로써 결실을 맺을 것이다.



NEWS

닭고기 콜라겐 제품 일본에서 인기

피부 노화, 피로회복 등에 효과적이라 알려져

일본에서는 요즘 닭고기 등에 함유된 콜라겐을 이용한 요리 및 음료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콜라겐은 섬유성 단백질의 일종으로 인체 세포와 뼈, 관절 등을 서로 이어주는 접착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라겐은 특히 주름의 원인이 되는 피부 속 진피층의 주요 구성 요소이며, 탄력 섬유인 엘라스틴과 서로 입체구조로 얽혀 피부를 견고하게 하고 연골을 강화하는 기능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콜라겐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둔해지고 갈숨이 조금씩 빠져나가 골밀도도 낮아지며 피부 탄력성도 떨어져 주름살이나 잡티가 형성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콜라겐이 피부 노화는 물론이고 피로회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일본에서는 닭고기나 돼지고기의 콜라겐을 수프에 녹인 일명 '콜라겐 냄비요리'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콜라겐 냄비요리는 탄력 있고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는 여성들은 물론이고 남성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으며 가정에서 손쉽게 콜라겐 냄비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제품도 선을 보였다. 일본햄의 경우 닭고기 콜라겐 3천mg이 함유된 젤리상태의 '콜라겐 다마'를 판

매하는데 이 제품은 콜라겐 냄비요리 외에도 카레라이스, 된장국, 만두요리에 사용했을 경우 깊이 있는 맛을 연출해 준다고 해서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한다.

미용식품으로서 콜라겐의 인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13년 전부터 콜라겐 음료를 판매해온 일본의 유명 화장품 기업 시세이도는 해마다 매출이 늘어 지난해 콜라겐음료 매출액이 100억엔을 돌파, 올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일본에서는 여러 화장품업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콜라겐음료'를 경쟁적으로 출시하면서 '콜라겐 음료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 전문점 아리따움이 콜라겐을 함유한 음료를 판매한다. 해당 업체 측에서는 콜라겐 음료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에 부족한 콜라겐 성분을 보충할 수 있어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꿀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내년 3월 방콕에서 가금류 박람회 개최

영양관리, 종계관리, 건강관리 등 3개 분야 논의

'Poultry Focus Asia(가금 포커스 아시아) 2010' 이 내년 3월 1~3일 방콕에서 열린다. 이 박람회는 양돈, 낙농을 아우르는 Pig Poultry & Dairy Focus Asia 2010 행사의 일부로, 가금류, 양돈, 낙농 등 각 축종별로 나뉘어 축산기술 회의가 개최된다.

'가금 포커스 아시아 2010' 행사에서는 영양관리, 종계관리, 건강관리 등 3분야로 나뉘 진행되며 먼저 영양관리에서는 영국 및 싱가포르 학자들이 효율적인 사료 운용에 대해 발표하고 사료 첨가제 생균제의 사용에 따른 장내 건강

증진과 마이코톡신 제어방안 등 효소제의 사료효율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종계 분야에서는 난상관리, 이윤의 극대화, 질병예방, 계태아 맞춤형 부화, 병아리품질의 중요성, 부화장 환기의 중요성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건강 관리 분야에서는 10여 개국에서 참여한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살모넬라 제어, 괴사성 장염, 감보로병, ND, ILT 및 제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NEWS

농촌진흥청, 겨울철 축사 화재예방 당부 전기설비 점검과 개보수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야

지난 12월 21일 상주 양계장서 화재가 발생해 닭 1만여 마리가 소사했으며 그보다 3일 전에는 충남 청양군 양계장에서 불이나 병아리 1만1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같은 지역에서는 한 달 전에도 계사에 화재가 발생해 7만 여수의 닭이 소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이처럼 축사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농장주나, 관리인 모두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발생원인과 예방방법 등을 소개해 겨울철 축사 화재예방을 당부했다.

축사 화재는 주로 전기와 전기배선, 전열기구, 내부 열악한 환경, 관리 부주의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화재를 미리 예방하려면 이 부분을 미리 점검하여 위험 소지가 있는 것은 즉시 교체 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축사의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개·보수는 전문 업체에 의뢰하도록 하고 옥내배선

이나 배선기구의 용량을 무시한 채 한 개의 콘센트에 많은 배선을 문어발식으로 연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후화된 개폐기나 차단기는 즉시 교체하는 한편,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는 반드시 정격용량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누전차단기는 주 1회 점검을 실시토록 하며 특히 겨울에는 보온등과 열풍기 등 전열기구와 전선의 안전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온을 위하여 겨울철에는 밀폐를 하게 되어 육계사내 습기가 높아져 누전의 위험이 높으므로 유해가스 제거 및 습기 제거를 위해 환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축사별로 관리담당자를 지정, 사전 및 수시 점검으로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며, 유사시 축사용 고압세척기 등을 활용해 초기에 진화를 할 수 있는 장비의 비치와 열풍기나 온풍기 상단의 자동 확산 소화기 설치를 당부했다.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제를 위한 기술개발(R&D) 추진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방역기술 개발 강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인접국가에서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재발 및 유입방지와 효율적인 방역추진을 위하여 신속진단법, 백신개발 등 방역기술 개발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국내 유입방지 및 유입 시 초동방역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법 및 예방기술을 개발하여 조기검색·예찰에 활용하고 있다.

HPAI 방제를 위하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신속 간이진단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조기검색 및 예찰에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항체검출법(C-ELISA)을 개발·보급하여 HPAI 방역에 활용하고 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 본 소식지는 여러분이 내는 자조금으로 만드는 책자입니다. 소식지에서 다루셨으면 하는 내용이나 의견을 담은 원고를 보내주세요.
-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연구용역이나 산업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비매품 / 제1권 제2호 통권2호 / 등록번호 서초 라00269 / 발행 2009년 12월 15일 / 발행인겸 편집인 이준동 / 발행처 (사)대한양계협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5층, Tel : (02)588-7651, Fax : (02)588-7655 / 인쇄처 삼원정판사 / 편집 인포아트 /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Tel : (02)588-7651 Fax : (02)588-7655

고단백, 저칼로리의 닭고기!!

다이어트의 필수식품 닭고기

닭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섬유가 가늘고 연하며 지방이 근육섬유 속에 있지 않은 것으로 맛이 한결 담백하고, 소화흡수가 잘되며, 지방 제거가 용이해 살코기만 섭취할 수 있다. 따라서 식이요법으로 체중감량을 할 때 단백질 섭취원으로 닭고기를 많이 선택한다. 단백질은 몸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뼈대의 역할을 하며 각종 질병도 예방해 주는데, 닭고기의 가슴살에는 다른 동물성 식품에 비해 월등히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가슴살은 지방이 1.2%정도로 매우 소량 함유되어 있어,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력을 유지하기에 제격이다.



동맥경화, 심장병 예방에도 적합

칼로리면에서 보면 닭고기의 열량은 100g당 126kcal 정도로 돼지고기(삼겹살)나 쇠고기(등심) 등에 비해 훨씬 낮다. 이에 체중 증가를 우려하는 중년층이나 신체 활동량이 적은 사무직 근로자들에게도 적합한 식품이다. 닭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리놀레산이 함유되어 있어 암 발생은 물론 동맥경화, 심장병 예방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준다. 또 쉽게 피로를 느끼고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닭간을 섭취해 주면 좋다. 닭뼈를 진하게 우려 낸 치킨수프는 몸살감기의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콜라겐 성분이 있어 피부미용 효과

닭날개에는 콜라겐 성분이 들어 있어 젊은 여성들이 원하는 고운 피부를 만들어 준다. 콜라겐은 일상적인 식사만으로 충분히 섭취되지 않으며, 자외선과 노화에 의해 자연적으로 손실되는 만큼 별도로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산후 회복의 영양식

임산부의 경우 단백질과 양질의 지방 섭취가 필수적이다. 닭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고 소화가 잘되는 만큼, 풍부한 영양을 필요로 하는 임산부에게 좋은 영양식이다. 꼭 고아낸 닭을 미역과 함께 끓이면 산후 회복식으로 적합하다.